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명품 '광양매실' 명성 위한 경쟁력 강화 나서

### 방치과원 폐원 지원·틈새 소득원 발굴·가공용 매실수매 지원 등 확대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매실농가들은 전국적으로 매실 과잉생산과 소비침체 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실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매실농가들의 소득감소는 물론 판로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매실과원 정전인력 지원과 동력전장기위 보급, 매실 소형선별기 및 공동선별시설 확충, 직거래용

신선포장에 지원,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 등을 진행했다.

또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서울 신촌 젊음의 거리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광양매실축제와 직거래 장터를 각각 운영하는 등 매실의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광양매실을 국내 매실시장을 주도하는 농가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병행해 신규로 방치과원 폐원 지원,

체리?플로코트 등 매실대체 소득품목 시범육성, 장아찌 생산용 기기 보급, 가공용 매실수매 지원, 홈쇼핑 런칭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정옥자 매실원예과장은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며 "광양매실을 '대한민국 명품' 매실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양시 주거급여 접수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 원)의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또 사전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보성군,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연시회 개최

보성군은 12일 복내면 일봉리 일원에서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에는 조사료 경영체 대표 옥수수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시회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일환으로 벼 대체 작물을 지원하여 쌀 과잉 생산을 막고 쌀 가격 안정을 꾀하고자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이에 발맞춰 252ha에 조사료용 옥수수를 심었다. 올해 조사료용 옥수수는 7,530톤이 생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옥수수는 관내·외 TMR사료공장과 축산 농가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군은 일찍이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료 옥수수, 총체벼에 대해 단지화를 추진하여 13개소에 350ha의 타작물 단지를 조성하였다. 특히, 복내면 일봉 단지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모든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여는 타작물 집단재배지의 표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쌀값 안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조사료용 옥수수는 가치가 높아 축산 농가 호응이 좋고 단지화가 용이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순천시 장년층 인생2모작 지원 Start Up

### 외부 강사 초빙 '인생2모작 생애설계교육' 실시



순천시는 은퇴전후의 장년세대(만50세~64세)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인생2모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순천시의 장년세대는 6만4천여명이며, 순천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학력이 높고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으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장년층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로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장년층 90명을 대상으로 '인생2모작 생애설계교육'을 실시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은퇴전후 장년

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적극적 마인드 함양과 생애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오는 18일에는 순천정원지원센터에서 생애설계교육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전문 심화교육은 생애설계의 전반적인 마인드 교육을 뛰어넘어 개인의 직무 전문성 찾기와 활동 방안,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등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순천형 특화사업 발굴과 참여자의 동아리 활동구성을 통해 향후 순천시 이모작 지원정책 시스템 확장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게 된다.

순천시 박정숙 민원복지국장은 "50+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Re-born'이다. 신중년으로 불리는 장년세대에게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세대 사이의 '갭' 세대가 아닌 '갭'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생2모작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2019년에는 정보 및 교육 지원, 소통의 장,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을 윈스튜디오로 제공하는 인생2모작 지원센터 개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보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가 빠르게 말라 죽어 가는 증상을 보이는 소나무 전염병이다.

방제작업은 지난 8월 감염목 4그루가 발생한 벌교읍 지동리, 봉림리, 연산리, 장암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9월 중순 설계용역을 거쳐 11월부터 피해 고사목 수 집·파쇄, 예방 나무 주사 접종 등 본격적인 방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 외에도 8월 소나무재선충병 및 고사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실시했으며, 최근 발견된 감염목 반경 2km 이내에 있는 4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성군에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벌교읍 호동리, 영동리, 장암리, 전동리, 벌교리, 장암리, 연산리, 봉림리, 회정리 지동리, 낙성

리, 척령리, 장좌리, 고을리, 추동리이다. 기존의 11개 리에 이번에 추가된 4개리를 합하여 총 15개 리 6,192ha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벌금을 주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안구일 기자

##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순천형 힐링캠프' 운영

순천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순천만 에코촌, 순천만국가정원일원에서 고도원과 함께하는 순천형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깊은산속 웅달샘의 잠깐 멈춤 힐링 특화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와 아름다운 순천에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기명상·

침천명상·걷기명상·웃음명상·통나무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과 고도원의 '꿈너머 꿈' 특강 및 즉문 즉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순천형 힐링캠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참가희망지는 깊은산속 웅달샘 홈페이지 또는 순천시 행복돌봄과(749-6887)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5만 원이다.

행복돌봄과 장흥상 과장은 "원과

회복, 치유의 명상프로그램과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과과의 만남이 평소 감성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좋은 기운을 드리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순천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목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